

# 온코닉테라퓨틱스, 항암신약 중심 임상 승인·수익화로 경쟁력 입증

네수파립, 위암환자 대상 임상  
난소암 등 적응증 다각화 속도  
3분기 최대 분기실적 달성도

제일약품의 신약 연구개발 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핵심 항암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수익 성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세대 항암제 후보물질 '네수파립' 적응증을 추가하며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네수파립 신규 적응증인 '위암'에 대한 임상 1b/2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번 임상 목적은 네수파립과 기존 화학항암제 이리노테칸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상급병원에서 치료제가 부족한 3차 이상 치료 경험이 있는 재발·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치료 대안이 매우 제한적인 진행성 위암 분야에서 네수파립의 임상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위암은 여전히 글로벌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질환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위암 신규 환자수는 연간 96만 8734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수는 66만 175명으로,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전 세계 32개 암종 가운데 5위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전경.

/제일약품

이와 관련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네수파립 적응증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췌장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질환 관련 임상에도 진입해 있다. 췌장암 임상 1b/2상은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자궁내막암을 적응증으로 한 네수파립과 글로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2상도 진행되고 있다.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네수파립과 베바시주맙의 병용요법을 탐색하기 위한 임상 2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도 신청한 상황이다.

이처럼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정조준하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수익성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해 신생 바이오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렸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7% 급증해 192억원을 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 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상장한 후 1년 만에 수익 실현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국IR협

의회에 따르면 이는 국내 바이오 기업 중 가장 빠른 수익화 달성 사례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표 품목인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정'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자큐보정은 칼륨경쟁적 위산 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제다. 지난 4월 연간 매출 목표치를 기존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3분기 누적 매출만으로 378억원을 기록해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했다. 올해 6월 위량양으로 적응증을 확대했고 10월에는 구강붕해정 제형도 품목허가를 받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에 따라 향후 매출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위암 임상 1b/2상 IND 승인은 최근 췌장암 2상 환자 투약 개시와 더불어 네수파립의 항암신약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본격적으로 입증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치료 대안이 제한적인 진행성 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인수' 속도

우선협상자 선정... 조건부 투자 체결  
만성질환 치료제로 포트폴리오 확장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인가 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스톡홀름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톡홀름은 우선협상자를 선정 후 공개 경쟁 입찰이 이뤄지는 제도다.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우선협상자 조건보다 유리한 제안을 하는 응찰자가 없을 경우 기존 우선협상자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 제약 인수를 통해 만성질환 치료제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유하지 않았던 세파게 항생제 제조라인,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 작업소와 품목허가 등을 확보하게 된다.

이율러 향후 부광약품의 의약품 생산 능력도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부광약품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액상주사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부광약품은 주사제 통합 생산방안을 추진해 설비 가동률 향상, 고정비 절감, 원가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부광약품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위탁생산 중인 제품을 자사 제조로 전환하는 경우, 외주 비용이 절감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인수의 1차적인 목적은 올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밝힌 바 있듯이 부족한 기존 안산공장의 생산능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한국유니온제약 공장은 지난 2020년 3월 대단위공장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허가를 마친 최신 시설이고 특히 항생제 라인 등 부광약품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부광약품의 경영진 체제에서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바 있다. 이러한 경영정상화 노후를 활용해 한국유니온제약도 단시일내 실적 개선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 '비타그란 비타민C구미젤리' 대용량 선풍

동아제약, 세가지 맛 15포씩 구성

동아제약은 비타민C 브랜드 비타그란에서 '비타그란 비타민C구미젤리 바라이어티팩'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바라이어티팩은 바구니 형태의 대용량 제품이다. 비타민C 구미젤리 오렌지, 복숭아, 포도 등 3종을 각 15포씩 총 45포를 담았다. 1포만 섭취해도 비타민C·비타민E·아연을 1일 영양성분기준치 100% 충족할 수 있다. 또 쫄쫄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과일 풍미가 더해져 간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동아제약 브랜드 관계자는 "간편하게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 바라이어티팩'

/동아제약

비타민C를 챙기고 싶은 분들, 지인에게 건강을 전하고 싶은 분들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실속형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SPC 섹타나인, F&B 특화 AI혁신 박차

네이버 클라우드와 '맞손'  
해피포인트 앱,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제조·물류 단계에도 AI 기술 적용

SPC그룹이 경영 전반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 하기 위해 네이버와 손잡는다.

SPC그룹의 IT·마케팅 솔루션 계열사 섹타나인은 AI 플랫폼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AVER 1784에서 전날 'F&B 특화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김대일 섹타나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SPC그룹이 축적해 온 F&B 리테일 사업 경험·데이터에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첨단 AI 기술·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결합해 'AI 기반 F&B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경영의 효율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NAVER 1784'에서 16일 진행된 'F&B 특화 AI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섹타나인 김대일 대표이사(왼쪽)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을 극대화한다. 또, 다른 기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멤버십 플랫폼 '해피포인트 앱'에 AI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매 이력과 각종 데이터 등을 분석해 최적의 맞춤형 혜택·메뉴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챗봇 상담뿐 아

니라 고객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고객참여형 R&D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제조와 물류 단계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AI 기반 설비 고장 예측 기술을 통해 설비 중단과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정교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최적의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매장 운영 역시 AI 분석을 활용한 재고 관리 시스템, 고객 응대와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는 지능형 솔루션을 개발해 스마트화 한다.

김대일 섹타나인 대표이사는 "AI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산업의 구조와 경쟁 방식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SPC그룹의 내부 혁신은 물론, F&B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구축해 산업 전체의 미래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SK케미칼, 파마사업 '사업연속성' 인증 획득

국제표준 인증 'ISO 22301'  
위기상황서도 생산·공급 지속

SK케미칼은 파마(제약)사업이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에서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 22301'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22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것으로 재난, 사고, 공급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사업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최단시간 내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SK케미칼 파마사업은 청주공장 의약품 생산은 물론 본사 업무까지 포함해 위기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세분화해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업무 복구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왔다. 청주공장은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BCMS)에 대한 내부심사, 내부심사원 양성, 모의 훈련, 경영 검토 등으로 인증 준비를 고도화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SK케미칼 청주공장장에서 이호진 SK케미칼 청주공장장(오른쪽)과 이일형 로이드사 대표이사가 'ISO 22301' 인증 수여를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케미칼

SK케미칼 파마사업은 이번 인증을 통해 향후에도 글로벌 제약 사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공급 안정성과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선 SK케미칼 파마사업대표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품질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과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며 "이번 ISO 22301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CMO·CDMO 사업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